

“특수교육 · 방과후 과정 분리 운영을”

전북 교육공무직노조 “지도사 1인에 책임 집중은 부당... 장애학생 교육권 위협”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분리 운영과 별도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육지도사 1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이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교육과정 참여를 보조하는 데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방과후과정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도 외에 협력하는 역할이지만 교사가 운영하지 않는 방과후과정까지 맡기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은 운영 주체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영역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서도 유치원 방과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후과정의 경우 별도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다른 학교급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역시 방과후과정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 실제로 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자원봉사자 등 별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해석을 근거로 특수교육지도사에게 방과

후과정까지 맡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법령 해석을 과도하게 적용해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직무 체계와 노동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수교육 현장의 노동 강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는 장애학생 지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높은 집중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방과후과정까지 연속적으로 맡을 경우 피로 누적과 함께 지원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활동과 발달 상황이 많은 방과후과정 특성상 추가 인력 없이 운영할 경우 학생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책 확대에 필요한 인력은 확보하지 않은 채 부담만 전가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라며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분리 운영 △방과후 전담 인력 배치 △특수교육지도사 적정 노동강도 기준 마련 △교육부 차원의 지침 유지와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작은학교 학생

프로축구 경기 관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작은학교 학생들의 스포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프로축구 경기 관람 지원에 나선다. 지역 프로구단과 기업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현대모터스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협력해 2026년 작은학교 프로축구 경기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1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열리는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 14경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지원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교생 30명 이하 면 단위 학교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도 3학교 이상이 연합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 관람뿐 아니라 이동 문제까지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방식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45인승 버스를 제공해 학교와 경기장 간 왕복 이동을 지원하고, 전북현대에는 단체 관람석과 함께 도시락, 간식, 기념품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관람 티켓과 스포츠 상해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전북현대모터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을 도내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버스 159대 대상 점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 자체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2일부터 24일까지는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와 함께 현장 점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159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운행 여부를 비롯해 하차 확인장치, 좌석 안전띠 등 필수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종합보험 가입 상태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교육지원청은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 보호자 미탑승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행정 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오상근 기자



22일 전북대학교 교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I 시스템 공유 컨퍼런스’를 연 가운데,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전북대, AI 기반 통합 혁신모델 공개

국제컨벤션센터서 컨퍼런스... 국립대 최대 AI 통합 인프라 공유

차세대통합관리시스템 · 교육과 연구 · 취업 등 전 영역 AI 도입

교육·연구·행정·취업 전 영역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혁신하는 ‘AI 대학 대전환’에 나서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2일 교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AI 시스템 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AI 기반 통합 혁신 모델들을 공개했다.

전북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서는 드물게 교육·행정·연구·취업을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한 전면적 전환 모델을 진격 구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 운영 전반을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통합적으로 재구성한 우수 사례를 전북 대학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국 대학의 AI 시스템 관련 부서장 및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JUMP)을 비롯해 LMS 3.0, 실시간 번역 서비스 AI JOB 플랫폼 JUC 등 전북대의 주요 구축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었고, 참석 대학과의 확산 방안도 논의됐다.

국립대 최대 규모 AI 인프라... JUMP로 행정 전면 디지털화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JUMP) 구축은 약 167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확장분까지 포함하면 약 200억 원 규모로 국립대 최대의 AI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핵심 축은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JUMP)’으로, 기존의 분절된 학사·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JUMP는 4,000여 개의 행정 화면을

구현하고, 업무를 온라인화해 업무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AI 기반 규칙 엔진을 적용해 졸업 요건과 같은 다층적 조건을 자동 분석하고, 학생이 스스로 졸업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졸업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단일 로그인(SSO)으로 20개 이상의 교내 시스템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고, 페이퍼리스 행정, 클라우드 중심 인프라 전환 강화된 보안 체계도 함께 구현된다.

AI 튜터·LMS 3.0... 자기주도 학습 시대 연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LMS 3.0)을 중심으로 ‘AI 튜터’와 콘텐츠 플랫폼을 결합한 차세대 교육 환경이 구축된다. AI 튜터는 강의 자료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RA(검색·증강 생성)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질문에 실시간 응답하고, 자동 문제 생성·평가·맞춤형 피드백까지 수행한다. AI 기반 자동 자가 생성 및 다국어 번역 기능과 실시간 번역 서비스도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글로벌 학습 환경이 크게 강화된다.

취업도 AI로... ‘AI JOB @ JBNU’ 맞춤형 진로 설계 진로·취업 분야에서는 ‘AI JOB @ JBNU’ 플랫폼이 도입된다. 학업 이력·비교과 활동·취업 준비 수준을 종합 분석해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희망 기업의 취업 가능성 분석과 유사 직무·기업 추천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취업 성공

사례 데이터 기반의 스펙 비교 분석과 부족 요소 진단을 통해 개인별 구체적인 준비 방향과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비 이상 징후까지 탐지... JUC로 연구 행정 혁신

연구 분야에서는 ‘차세대 연구지원 시스템(JUC)’을 통해 연구비 예산 수립부터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자동화한다. 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 기능으로 비정상적인 연구비 사용을 사전 식별하고, 역한 기반 대비 보드를 통해 연구자와 관리자 각각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11월 20일까지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4월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지역 바로알기,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화농민형 영유치 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내 45개 학교 95개 학급, 약 1,80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흔적을 직접 체험하며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돼 학습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답사는 필수 코스와 선택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이모저모

“전북형 피지컬 AI로 교육 대전환”

이남호 예비후보, 정동영 의원과 전북교육 비전 공유

AI · 산업 · 교육 연계 강조... 미래 인재 양성 방향 논의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전북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피지컬 AI 프론티어 강국 신기술 조찬 포럼’에 참석해 좌담을 맡은 정동영 의원과 전북교육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산업 연계형 인재 육성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산업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전북이 추진 중인 피지컬 AI 산업을 유·초·중·고 교육과 연계해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 의원은 “교육은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과 산업을 함께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대학, 지역 산업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제시해 온 ‘교실을 넘어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교육’ 비전을 재차 강조



했다. 그는 전북연구원장 재임 시절 피지컬 AI 관련 전략 수립과 이론적 기반 마련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AI 기반 학습 플랫폼 고도화, 인문·독서 중심 융합 교육, AI 윤리 교육 강화, 진로·산업 연계 강화 교원 및 교육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AI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이 결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AI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전북형 AI 교육모델을 통해 학습과 진로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북교육의 주요 과제로 ‘지역과 연결된 교육 실행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상근 기자

독서 환경 조성 · 기초학력 강화

천호성 예비후보, ‘독서 300권 프로젝트’ 제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독서 환경 조성 과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천 예비후보는 22일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사고력과 문해력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에 치우치지 않고 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작권 인식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이미지와 영상이 모두 창작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천 후보는 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독서 300권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독서 교육 기반을 마련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학교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마을, 어린이·공공도서관을 연계해 독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독서 300권 프로젝트를 12년 성장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전북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며 “독서교육과 함께 저작권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북체육고등학교에서 학교 운동부지도자 191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32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 · 청렴성 강화

전북교육청, 2026 상반기 직무교육... 건전 운동부 문화 조성 취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전문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학생선수 육성과 함께 건전한 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체육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191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32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여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해 학교운동부를 교육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반부패·청렴 교육을 병행해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청렴 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립 방자외 (성)폭력 예방 교육, 인권 교육, 지도자의 역할과 인성 함양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수 첫날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참석해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참석자들과 함께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오상근 기자